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9월 17일(주일) 제1459호



사진은 지난해 추석연합집회 'Harvest(하비스트)'.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2023 Harvest'

9월 29일~10월 1일 파주 영산수련원, 이주민 500여 명 참석

지구촌 이웃들과 한가위를 함께 보내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시작된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2023 Harvest(하비스트)'가 막 오른다. 9월 29일(금)부터 10월 1일(주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391번길 40)에서 'Way, Truth, Life(길, 진리, 생명)'을 주제로 진행된다. 몽골, 네팔, 필

리핀,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페르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 하비스트에서는 세 번의 예배, 나라별 장기자랑, 나라별 모임, 조셉 붓소 형제의 특별 공연 및 간증, 미니올림픽, 성찬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성환 목사(부산수영로교회)

'길', 김태진 목사(미 해병대) '진리',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생명'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를 위한 물품 후원을 받는다. 필요한 물품은 추석 선물세트, 텀블러, 간식 등이다. 후원을 원하는 성도들은 9월 23일(토)까지 온누리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로 물품을 보내면 된다.

'하비스트'는 이주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연합예배다. 고국을 떠난 이주민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문의: 010-9418-1910(고원규 선교사)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9월 27일~11월 5일
명동성당 들머리

생명을 위한 기도의 불길이 올해도 타오른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9월 27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명동성당 들머리(서울 중구 명동길 66, 농협은행 명동지점 건너편)에서 시작된다. 11월 5일까지 이어진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64개국 100만 명이 참여하는 전 세계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 기도 캠페인이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홈페이지(40days.forlif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마친 성도들은 신청한 날짜에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 현장에 비치된 기도문을 읽고,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 된다.

문의: 02-703-4620

20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10월 8일까지 순별, 개인별 헌금 및 공동체별 대상자 선정

20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온누리교회 각 공동체와 순에서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를 선정하고, '감사의 쌀' 구매를 위한 헌금을 봉헌하고 있다.

2023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는 1순위 온누리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눔 대상자가 선정되면 10월 8일(주일)까지 공동체 이름으로 서빙고와 양재는 이메일(서빙고: 23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헌금은 10월 8일(주일)까지 쌀 20kg 한 포대 가격(6만5천 원)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봉헌하면 된다. 순에서 헌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헌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꼭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이다. 각 캠퍼스는 목회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러브소나타 '미야기' 참가자 2차 교육

9월 21일 오후 7시 30분 양재 기쁨홀

러브소나타 '미야기' 참가자 2차 교육을 한다. 9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2차 교육에서는 강부호 목사가 설교하고, 참가자팀과 봉사팀의 사역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참가자 1차 교육은 지난 9월 14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박종길 목사가 설교하고, 나가기 노부요시 실행위원장과 Zoom 미팅을 했다. 참가자 및 스태프, 목회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러브소나타 '미야기'는 오는 10월 11일(수)과 12일(목) 일본 미야기 센다이 선프라자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를 주제로 막 오른다. 문의: 02-570-7415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창세기〉 12장은 성경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성경 지면의 분량으로도 이 두 사람의 생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 인류의 역사에서 그 폭이 좁아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중심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다시 전 인류의 역사로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유대중심주의, 유대특수주의라는 시각으로 세상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본연의 인류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부속적인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머지 세상 민족들은 불필요하거나 부속적인 것으로 여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역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므로 전 인류를 흠으셨습니다. 그 이후 족보가 나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썸의 후손 중에서 데라를 택하시고, 데라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에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인류를 흠으심으로 심판하셨지만, 인간의 죄는 무서운 심판으로도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임했으면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데, 심판을 받아도 인간의 죄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홍수 심판 이후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벨에서 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이 흠으심으로 심판하셨지만, 흠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썸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친밀한 교제를 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썸의 후손 가운데 데라, 데라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심으로 썸의 장막을 넓게 하신다는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은 이미 노아에게 주신 말씀, 썸의 장막을 창대하게 하셔서 함과 야벳, 모든 족속이 썸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에서 탑을 쌓는 인류를 심판하셔서 세상에 흠으셨지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벨에서 인간의 타락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부르심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바벨에서 탑을 쌓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이유를 그 이전에 나오는 족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가정환경, 형편, 배경에서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나오는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여 너의 이름을 높임으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르에서 주로 달을 신으로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떤 계기로 만났을까요? 그 힌트가 형제 하란의 죽음입니다. 부정적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일은 아버지보다 오래 살아야 할 하란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계기가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신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은 거라는 왜곡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은 그들이 믿는 달의 신,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형제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배경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입니다. 많은 자손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면 노아와 썸과 썸의 후손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 인물을 뽑으려면 욥이 될 것입니다. 욥의 시대가 〈창세기〉입니다.

욥은 경건한 노아의 후손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인 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는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 택하는 조건에서 욥보다 좋은 조건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뽑으려면 욥이 뽑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더 핑크(Arthur Pink)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른 것은 전능하신 분의 힘이 그와 함께 역사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의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선택보다 큼니다. 나의 능력보다 큼입니다. 부르심이란 내가 하고 싶은가, 싫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어떤 제약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부르심이 아니라면 모든 풍족한 환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된다면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갑니다. 어떠한 제약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부르심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임하고,
그 부르심과 여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창 12:1-3).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떻게 전 인류를 구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모든 성경 역사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풀리지 않는 사건이 있으면 항상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 이 말씀에 비춰서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인류의 조상처럼 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에덴동산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됩니다.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반복됩니다. 타락 이후에는 11장까지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저주’, ‘형벌’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합니다. 인간의 타락인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저주라는 단어를 12장 이 짧은 구절에 다섯 번 등장하는 ‘복’이라는 단어로 씻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어느 학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할 것을 구조적으로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한글 성경 순서가 아니라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구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셨다. 나가라. 너의 본토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도록 그리고 축복이 되게 하도록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도록)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에 아브람이 갔고 롯도 갔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 집으로부터입니다. 점점 더 가까운 순으로 옵니다. 본토라는 넓은 나라의 영역,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아버 집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정은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먼저 복을 받는 수요자가 되어서 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 데라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대케 복을 주셨습니다. 역사가 그들이 창대케 되는 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심으로써 너희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먼저 부르신 자가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과 후손 편에 서서 싸우시고,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는 걸 보고 일반 역사가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생활 법칙을 연구해서 유대인처럼 사는 법을 말합니다. 물

론 유대인들에게는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번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유대민족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완악함을 배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목적, 세상의 구원을 위한 목적

두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1인칭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을 고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문을 보면 ‘내가’를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홀룡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목적, 세상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들이 나라를 되찾고, 짧은 기간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역사가 근현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완강히 그들을 압박하는 틱바구니 속에서도 생존했고,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정반대로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복을 받았음에도 전달자가 되지 않으면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해도 받아들이기 텐데 성경을 읽지 않고 율법을 해석한 탈무드와 미드라시, 또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만들고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그들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들이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망각하는 것을 돌아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동쪽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서북쪽으로는 그리스, 서쪽으로는 로마 등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틱바구니에 있는 작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끼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땅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역사의 청사진을 보여 주시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부르심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임하고, 그 부르심과 함께 여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언어로 현실을 왜곡하려는 ‘젠더이념’

의학적으로 반대 성호르몬 투여나 수술을 통해 남자를 여자로 혹은 여자를 남자로 성을 바꿀 수 있음을 암시하는 ‘성전환’이라는 직접적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이념 활동가들은 ‘젠더 확인치료’라고 완곡하게 부르도록 만들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의료적 접근으로 완전한 성전환이 불가능함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다. 남성에서 고환절제술과 질형성 성형술을 하더라도 여자로서 임신하거나 성적인 쾌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잘 모른다. 추가로 가슴 성형술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조금 더 여성처럼 보일 뿐이다. 완전한 여성이 되려는 욕망은 얼굴 성형, 팔다리 성형, 피부 시술 등 끝없는 추가 수술과 막대한 비용이 더 필요할 뿐이다.

그뿐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술 전부터 시작해서 수술이 끝나고도 평생 여성 호르몬을 투여받아야 한다. 남성 호르몬을 합성하는 주 장기인 고환을 절제하고, 많은 양의 여성 호르몬을 외부로부터 투여받는 동안은 남성으로의 성징이 억제돼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시상하부-뇌하수체-호르몬 분비기관 사이의 연동으로 자동 조절되게 디자인되어 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많은 양이 외부에서 투여되면 과잉 호르몬에 의해 항상성이 깨어지고, 만성 대사성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투여받은 성전환자들 대부분 호르몬 투여가 10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질환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질환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대 성호르몬 투여를 멈춰야 하는 시기가 온다. 그동안 여성 호르몬 투여로 인해 억제되고 있던 몸의 100조 개에 이르는 모든 세포 속 Y-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던 남성 호르몬 생산능력이 다시 켜지고, 원래 성의 특성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 이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결국 ‘젠더확인치료’라는 것은 “내가 그걸 원하니 우리는 확인만 해 줄게”라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음을 암시하고 싶은 것이다.

“젠더활동가들이 ‘성전환치료’를 ‘젠더확인치료’라는 말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은 완전한 성전환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위한 언어적 술책이다.”

둘째, 생물학적 성과 성별(젠더)을 분리함으로써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방식을 바꾸려는 언어 왜곡 시도일 수도 있다. 이 언어 왜곡의 이면에는 어떤 진리도 확실하지 않으며, 진리는 각자 의미를 부여하는 바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처럼 확실한 현실적 차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 현실의 모든 구분(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혹은 또 다른 구분)을 부정할 수 있다. 젠더이념의 투쟁 목표는 겉으로 드러난 생물학적 성의 해체를 넘어 단어의 의미 자체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언어의 왜곡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하나의 단어가 실재하는 사물이나 아이디어 하나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언어를 규정하는 기준이 없다면 결국 말과 실재가 분리된다. ‘단어는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의 핵심이다. 현재 포스트모더니즘 젠더 활동가의 가장 큰 관심은 인간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인체에 대한 거짓을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다.

‘트랜스섹슈얼’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러나 ‘정체성’이나 ‘자기 표현’이라는 의미가 추가될 수 있는 ‘젠더’가 도입되면 이 용어가 부드러워진다. 그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라는 의미는 호르몬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춘기 이전의 청소년일 수도 있고, 특정 성별 규범과 고정관념을 따르지 않는 어린이일 수도 있게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모호한 용어로 인해 혼란이 계속 과급되고 관련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한다. 이 시대 언어 왜곡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당신에게 불합리한 것을 믿게 만드는 자라면 당신에게 어떤 잔학한 행위도 저지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이렇게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불합리한 것을 믿게 만드는 데는 언어를 왜곡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종합하면, 젠더활동가들이 ‘성전환치료’를 ‘젠더확인치료’라는 말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은 완전한 성전환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위한 언어적 술책이다. 단어의 뜻을 왜곡해서 거짓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탄이 길 모습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그 뜻을 왜곡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속이는 길모습과 거짓말에 속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자유의지로 넘어서는 타락으로 연결되었다. 그와 같은 속임과 타락이 반복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났고, 오늘날 ‘젠더확인치료’라는 용어 속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레즈비언이며 페미니스트 학자인 줄리아 롱의 말이 의미가 있다.

“‘트랜스’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라는 거짓말을 믿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모든 것이 뒤집힌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기독교 세계관과 생명공학

김희준 집사
(온누리세계관학교)

현대의 새로운 생명공학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와 싸우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신체 구조와 능력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생명 윤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들은 ‘생명의 파괴’였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생명의 파괴가 아니라 ‘창조와 조작’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1978년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다. 착상 전 유전자 검사와 배아 선택이 가능해졌다. 또 1996년 복제 양 ‘돌리’의 탄생으로 인간의 배아를 만들고, 그것을 조작해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몇 가지 당혹스러운 문제와 당면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1998년 개봉한 영화 ‘Gattaca’가 있다. 영화의 제목인 ‘Gattaca’는 DNA를 구성하는 네 가지 염기인 아데닌(Adenine), 구아닌(Guanine), 시토신(Cytosine), 티민(Thymine)의 머리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라는 <전도서> 7장 13절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 영화의 세상은 유전공학이 고도로 발달했다. 유전자 편집으로 위험인자를 모두 제거하고 우수한 유전인자를 혼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게 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을 지도하고 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근거하고 있고, 인간의 육체 구조 안에 구현된 창조 질서 역시 하나님에 의해 유지됨을 인정할 때 가장 빛난다.”

능하다. 태어나는 순간 예상 수명과 질병 가능성, 성격 등을 예측하고 판별해서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는 사회다. 유전자의 조작 없이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주인공 빈센트는 선천적으로 약한 심장, 근시 등의 판정을 받아 그의 미래는 시스템 내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되었다. 반면 열성인자를 모두 제거하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남동생은 형보다 키가 크고, 근시도 아니었다.

특정한 특성을 가진 아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생명공학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써 ‘존재’의 산물이 아니다. 인간의 재량에 달린 ‘의지’의 산물이 되기 쉬우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품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 영화와 존 스토틀 목사님의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을 통해 생각해 본 생명공학이란, 첫째,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옛 계몽주의에서 유래한 자연을 통제하고, 개선하려는 오랜 과학적 꿈이 인간의 육체에까지 확장된다. 인간의 육체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수정하거나 향상할 수 있는 원료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 둘째, 부모 자식 관계의 본질을 바꾼다.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나 최적의 유전적 잠재력을 갖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아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예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육체적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인류는 모든 세대에서 노화, 질병, 불임, 장애, 쇠퇴,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지혜와 통찰과 용납을 배우려고 애써왔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생명은 그가 지닌 신적 형상 때문에 독특한 존엄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각 생명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을 지도하고 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근거하고 있고, 인간의 육체 구조 안에 구현된 창조 질서 역시 하나님에 의해 유지됨을 인정할 때 가장 빛난다.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진로와 꿈

자녀의 진로 탐색과 부모의 역할



최은영 교수
(햇불트리니티 신학대
학원대학교)

요즘 아이들에게 “진로를 정했니?”라고 물으면 “네”라는 답변을 듣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 탐색’이 꼭 필요한데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상담학에서 말하는 진로 탐색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의 진로 탐색을 위해 크리스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자.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로 찾기’의 선행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신뢰’다.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구나’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잘 찾을 수 있다. 둘째, ‘자율성’이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진 아이들이 진로를 찾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셋째, ‘주도성’이다.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도 확신을 갖고 결정할 수 있다. 넷째, ‘근면성’이다.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해서 이룬 경험에 있는 아이들이 진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정체감’이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진로상담에서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지식 두 가지를 강조한다. ‘나에 대한 지식’과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이다. 진로 탐색이란 ‘나와 직업 세계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지식’이란 무엇일까?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중요한 게 있다. 나에 대한 지식을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이다. 가치가 분명하면 적성에 조금 안 맞아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나에 대한 지식을 쌓을 때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아무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았어도 의사결정력이 없으면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유부단하고, 결정력이 없는 아이들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외에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간관계 능력’, 진로를 탐색할 때 필요한 ‘정보수집 능력’도 필요하다.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을 탐구하면서 다양한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은 그 직업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과 훈련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준비하는 일이 직업 세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다.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계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실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 그 직업의 전망 등을 파악하면 직업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직업사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녀의 진로 탐색과 결정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자녀가 잘하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모든 일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지 못한다. 부모의 눈에 자녀가 잘하는 게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부모가 원하는 것만 찾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자녀를 바라본다. 그래서 그 능력을 벗어난 자녀의 관심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관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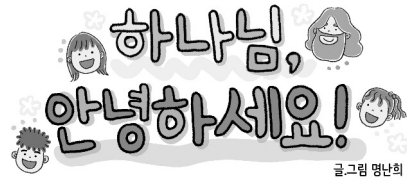
둘째, 자녀의 견문을 넓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여행, 학교 구경, 봉사활동 등 넓은 세상,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내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다. 그때 아이에게 조건을 걸었다. 동네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 했던 1년 6개월 동안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고 말한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직접 보고, 생각하고, 배운다.

셋째, 자녀와 함께 의논해야 한다.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일에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부모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절대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주도성을 가지고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와 끊임없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넷째, 자녀와 함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야 한다. 사람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자녀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하며 그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부모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의 진로를 지도할 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게 느끼는 걸 나도 가치 있게 느끼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부모가 인생에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녀들도 안다. 또 부모는 자신의 삶과 일을 돌아켜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2편 진로·꿈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 천고마비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9월 11일(히 7:1~5), 15일(히 9:6~10) 본문

1. 이 사람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물건 중 10분의 1을 이 사람에게 예물로 바쳤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았어요(히 7:1~5).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 이스라엘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섬겼고, 지성소는 일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대제사장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히 9:6~10). 예수님이 해주신 행동이 무엇인가요?

- 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 ② 바위 위에 올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 ③ 사람들을 모아두고 화개하라고 전하셨다
- ④ 제자들을 보내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아웃리치 간증

“믿음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부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전도사님과 친구들의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 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아웃리치 첫째 날 저녁예배를 드리면서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즈음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그 말이 떠오르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게 당연했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매우 당연했습니다. 나의 의지라기보다 부모님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여전히 걱정과 불안,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를 매주 가야 할까?’, ‘교회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제야 왜 전도사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무적으로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고등부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믿음에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믿음을 찾기 위해서도 교회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단순히 누구를 따라서 가거나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제 의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내 아웃리치에서 믿음에 대한 욕심을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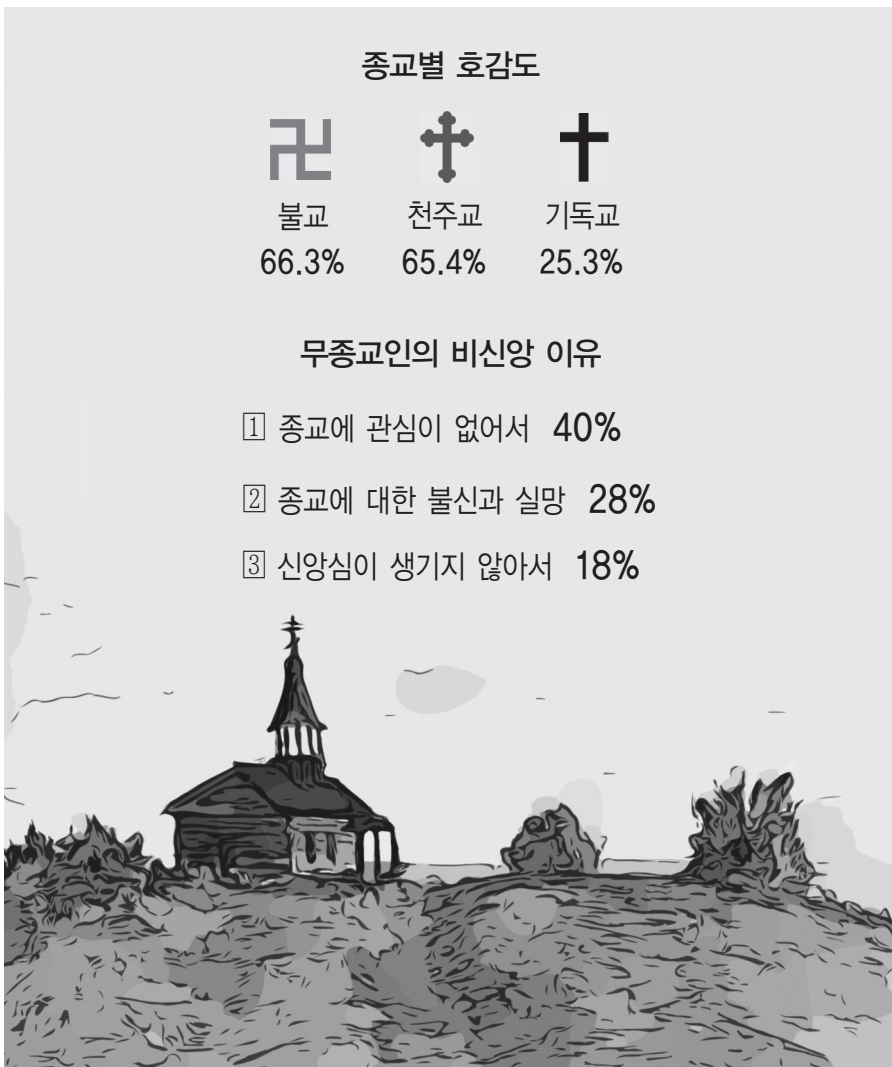
/ 임지윤 학생(대전 고등부)

“그들을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 부른다!”

삶으로 드러나는 크리스천의 삶 그리고 정체성

요즘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만 해도 시선이 따갑다. 전도는 말할 것도 없이 괴롭고 힘든 일이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크리스천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라 불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간단하다.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을 발하면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자 정체성이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어!”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어떤 사람이 좋은지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이었다. 큰 충격을 받았다. 교회와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었다. 어디 이뿐일까?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른다.

국민일보와 코디연구소가 1천 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종교호감도’ 불교 66.3%, 천주교 65.4%, 기독교 25.3% 순으로 나타났다. 불교가 가장 호감도가 높았고, 기독교는 불교와 천주교 호감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교회와 크리스천의 호감도를 떨어뜨린 이유 말이다. 미디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교회와 크리스천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는 드라마가 너무 많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리남’, ‘더 글로리’, ‘마스크걸’ 등에서 교회와 크리스천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드라마에 걸로로는 신실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인이거나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단순한 설정을 넘어 미디어에 비친 교회와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드라마 설정과 실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위선과 가식, 거짓으로

각인된 교회와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벗어나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와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찾을 이유조차 찾지 못한다. 당연히 전도를 거부하고, 피하기 바쁘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 교회를 버리는 실정이다.

‘2023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탈종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종교가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있다 37%, 없다 63%였다. 2012년 조사에서는 있다 55%, 없다 45%였다. 탈종교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40%),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28%),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 (18%) 등의 순이었다. 2017년 조사보다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7%,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6% 증가했다.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무관심과 실망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또 있다. ‘무종교인의 종교 필요성 인식 조사’에서 ‘종교가 필요하다’는 응답 31%,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69%를 차지했다. ‘종교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7년 조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실망까지 더해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별로 없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삶으로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실망을 벗고, 사람들이 더는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다시 그리스도 품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간단하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삶으로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에게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이름도, 빛

도 없이 섬김과 나눔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한 여성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 그 여성은 비를 맞으며 빈 수레를 끌고 가던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자신의 어깨가 흠뻑 젖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에게 우산을 기증했다. 노인과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걷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더했다. 그 여성의 선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금을 봉투에 담아 노인에게 건넸다. 어느 언론사에서 수신문 끝에 그 여성을 찾아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전하면서 끝내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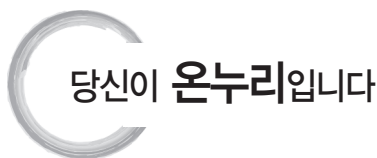
다른 사례도 있다. 인천 예수이룸교회의 ‘얼굴 없는 문고리 반찬 섬김’이 그것이다. 예수이룸교회는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학생 10여 명 집에 반찬 배달을 한다. 주로 한 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아이들이 대상이다. 한 번 갈 때마다 일주일 이상 먹을 반찬을 가져간다. 문고리에 반찬 꾸러미를 걸어두고 조용히 다음 장소로 향한다. 그 도시락 어디에도 교회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함께’, ‘너는 소중한’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줬다. 예수이룸교회는 폐지 좁은 어르신이나 택배기사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기도 한다. 그들은 삶으로 예수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도 그 아름다운 사람이 참 많다. 얼마 전 방영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철수리’ 편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다. 故 유재건 장로다.

유재건 장로(당시 변호사)가 1973년 미국에서 인종 차별에, 살인 누명까지 쓴 한인 이민자 이철수 씨의 변호를 맡았다. 당시 이철수 씨는 두 번의 살인 누명을 쓰고 캘리포니아주 사형법에 따라 사형수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유재건 장로를 비롯한 한인 교회 성도들, 이경원 기자와 이철수 씨의 친구 란코 야마다가 한마음으로 연합해 그의 결백을 밝혀냈다.

당시 유재건 장로는 본인의 집을 담보로 맡기면서까지 이철수 씨를 헌신적으로 도왔다. 유재건 장로의 희생과 헌신이 한 영혼을 살렸다. 그 일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더는 소수민족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와 크리스천의 삶이자 정체성이다.

크리스천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조금 희생하더라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 부른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그날을 소망한다.



온 누리가 모이는 작은 집

‘Acts29 하우스’ 섬기는 조호정 집사

‘온 누리가 모이는 작은 집’이 있다. 조호정 집사(수원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해외 파송 선교사 전용 숙소 ‘Acts29 하우스’다. Acts29 하우스는 오랜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한 선교사들에게 쉼과 위로, 격려를 선물하는 공간이다. 조호정 집사의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으로 마련한 공간에서 선교사들이 진짜 쉼과 회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조호정 집사,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만 원짜리 한 장으로 밥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요즘, ‘Acts29 하우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30번길 16) 하루 이용료가 1만 원이다. 그 1만 원에 시설 사용료, 공용 전기료, 공용 청소료, 인터넷, 수도, 난방요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말 싼 가격에 놀라서 당장이라도 예약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아무나 묵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Acts29 하우스는 해외 파송 선교사 전용 숙소이기 때문이다.

Acts29 하우스는 오랜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4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인데, 층마다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1호는 4인 가족실, 2호는 2인실, 3호는 3인실이다. 인원별로 객실을 구성한 이유는 싱글 선교사, 선교사 부부, 자녀가 있는 선교사 가정 등 선교사들의 사정을 세밀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Acts29 하우스가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선교사들의 일정에 따라 최대 일 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안식년에 본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매일 숙소를 옮겨 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Acts29 하우스 4층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실 ‘시나클룸’과 교제 공간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 그 곳에서 선교사들이 언제나 기도하고, 나눔을 할 수 있다.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공간을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기도실은 시간별 예약제로 운영한다. 선교사들이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다음 사역을 준비할 힘을 얻는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마음을 이토록 잘 헤아리고, 그들의 사정을 배려하고, 개인의 신앙 성장을 돕는 공간까지 마련해 둔 숙소가 또 있을까? 이곳에는 선교사를 향한 사랑과 존중, 섬김이 묻어있다.

그래도 기쁘고, 감사했다!

Acts29 하우스는 조호정 집사(수원온누리교



조호정 집사가 해외 파송 선교사 전용 숙소 ‘Acts29 하우스’를 청소하고 있다.

회)가 운영하고 있다. 조호정 집사의 선교와 선교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문을 열게 했다. 선교사를 진심으로 섬기고 싶은 조호정 집사의 진심이 가장 값지고, 큰 감동을 준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대한민국 집값이 폭등했다. 당시 이사를 준비해야 했던 조호정 집사의 눈앞이 캄캄했다. 집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조호정 집사에게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음을 주셨다.

“집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안식년에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집을 구하는 게 어려운데, 선교사님들은 더 어렵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우리집보다 선교사님들이 지낼 공간을 먼저 마련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Acts29 하우스를 마련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조호정 집사는 그래도 기쁘고, 감사했다. 하나님이 조호정 집사의 마음에 선교사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선교, 선교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Acts29 하우스를 열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객실에 넣을 침대와 식탁, TV, 에어컨, 밥솥, 전자레인지, 옷장, 신발장, 욕실용품 등을 모두 자비로 채워야 했다.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껴서 채워 넣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아

껴서 선교사들이 덮을 이불을 마련하고, 교제 공간에 놓을 간식거리를 샀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호정 집사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신이 언제가 지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헌신을 모른 채 하실 리 없었다. 조호정 집사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다. Acts29 하우스 운영이 버거워서 눈물로 기도만 하던 조호정 집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최숙현 권사가 Acts29 하우스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방문했다. 숙소 계단을 오르던 최숙현 권사가 “이곳은 갈렙공동체가 2009년부터 7년 동안 선교관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팽팡기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라고 고백했다. 조호정 집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미 Acts29 하우스를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공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음속 불안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Acts29 하우스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들도 보내주셨다. 주변 성도들이 Acts29 하우스에 청소기, 이불 세트, 옷, 김치, 라면, 간식거리 등을 필요할 때마다 넉넉히 채워줬다. 선교사 숙소를 청소하다가 낡은 베개를 보고 “하나님, 선교사님이 쓰실 베개를 바꾸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면 누군가 베개를 후원했다. 더운 나라에서 사역하다가 겨울에 한국으로 들어와 옷이 없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면 외투 후원이 들어왔다.

얼마 전에는 기도제목이었던 ‘Acts29 4호 객실(3룸, 24평형)’을 마련했다.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온 은퇴 선교사가 임차했다. 한국에서 살 집을 구해야 했는데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계약할 수 없었다. 그때 Acts29 하우스와 인

연이 닿았다. 임대 계약이 끝나 비어있던 객실을 전세 계약했다. 그 덕분에 Acts29 하우스 운영 경비도 마련할 수 있었다.

“Acts29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cts29 하우스의 꿈,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는 공간

조호정 집사의 귀한 헌신 덕분에 Acts29 하우스가 온 누리에 흠어져 있던 선교사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의 이야기를 가지고 Acts29 하우스로 모여든다.

Acts29 하우스 첫 번째 손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K 선교사 가정이었다. 중앙기독교등학교(CCA)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어서 학교 주변에 숙소를 구해야 했는데, 선교사 부모와 5남매까지 7인 가족이라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안양에 선교사 숙소를 구하고, 매일 수원까지 왕복 3시간을 통학하고 있었다. 다른 선교사 숙소들은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5개월 동안 이사를 6번이나 했다.

조호정 집사는 지칠 대로 지친 그 선교사 가정을 위해 Acts29 하우스에 공간을 마련했다. 3인실과 4인실 두 객실을 내어주고 그들이 편하게 지내도록 도왔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온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에버랜드 나들이도 지원했다. 조호정 집사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 덕분에 이 가정은 Acts29 하우스에서 7개월을 머물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인도네시아 K 선교사 가정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가 Acts29 하우스에 머물며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50대 싱글 선교사가 위로를 받았고, 에티오피아에 교회 개척을 한 노부부 선교사도 쉼을 얻었다. 레바논으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 신혼부부는 Acts29 하우스에 머물며 파송교회를 구하고, 선교를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

Acts29 하우스의 비전은 ‘모든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집’이 되는 것이다. 조호정 집사가 그 비전을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Acts29 하우스가 로템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이어갈 힘을 주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10-8361-0028, 010-3796-0635
홈페이지: acts29house.modoo.at

맛있는 말씀 해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7)

동성애를 성경에서 부끄러운 일로 기술하고 있지만(롬 1:27), 교회에서 동성애를 다른 죄보다 우선해서 다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가 있다. 동성애의 근본 원인인 성 정체성의 혼란 또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게 반드시 죄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다. 십계명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으로 요약하셨다(마 22:37-39). 그런데 십계명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명은 사랑한다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첫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경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마치 국경선과 같

다. 국경선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국경선 안에서는 이동이 자유롭지만, 국경을 넘는 이동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경계였다면, 십계명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경계가 포함되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끼리 최소한 죽이고,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첫 번째 죄는 피조물인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며, 타락한 천사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유 1:6)’이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부여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십계명 정신 중 하나인 ‘자기 사랑’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당연히 남자 또는 여자라는 정체성이 포함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명도 주시지 않았다. 그것은 그 자체가 너무 분명해서 경계선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변할 수 없는 유전정보에 의해 남자와

여자로 결정되고, 그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몸이 만들어지며,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만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남자 또는 여자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동성애 관계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생물학적인 남자라도 여성과 같은 기질이 있어서 여성으로 살고 싶다면 그가 여성으로 성 정체성을 바꿔 사는 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양한 기질이 있고, 그 기질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탁월한 성취를 할 수 있다.

교회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지해줘야 한다. 문제가 되지 않는 기질과 성품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감정과 문화적 사회적 편

견으로 변할 수 없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 정체성뿐 아니라 키, 미모, 심지어 부모까지 바꾸기를 소망한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이 변화를 통해 해결될 것 같은 강한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변화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비롯해 체질과 성품, 출생 배경 등의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의 통로가 됨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 수 있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소망을 굳게 붙잡고, 참된 믿음으로

9월 18~24일
〈히브리서〉 10:1~11:40



과 그 의미를 묵상하자.

▶율법(옛 언약)은 ‘장차 올 좋은 일’(새 언약)의 그림자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린 희생 제사는 불완전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지 못하는 희생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한 몸’(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사로 드리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에 죄를 위한 제사가 더는 필요 없다.

묵상포인트 2: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담대함을 선물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고, 믿는 이들의 참된 소망이시다. 그분은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에

묵상포인트 1:

완전한 것이 올 때 불완전한 것은 폐기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 제사의 완전함

그때까지 우리는 담대함과 인내를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믿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예수님은 지성소 휘장을 찢듯 자신의 육체를 찢어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가차 없이 죽었기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성령을 모독한 자가 받을 형벌이 더욱 무거운 게 당연하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을 담대히 견뎌 내는 성도는 큰 상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묵상포인트 3: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땅의 삶에 천착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곳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이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감당하지 못한다. 구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실체)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벨, 에녹, 노아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듯,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시험을 받을 때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예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으며, 요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언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유월절 예식을 행했으며, 백성과 함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그 속에서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많은 이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기도 했다. 모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믿음을 잇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언약의 성취를 누린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힘쓰자.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담대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인간적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자. 매사에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훈련하자. ▶세상 즐거움과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가?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잘 감당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러시아어예배를 위해!

안산M센터 러시아어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저희는 매주 안산M센터에서 러시아어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어예배가 언제나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또한 러시아어예배 안에서 순예배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순예배에서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러시아어예배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도록 기도해주시시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연합 트레스 디아스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러시아어예배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국내에 있는 러시아권 한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러시아어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더 크게 부흥해서 온누리 교회에 러시아어권 공동체가 더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유세르게이 목사(안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기!

“대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저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빠지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일방적으로 나무라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다. 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선한 열망으로 보신다.

25살에 첫사랑이었던 아내를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했다. 연애를 시작했더니 싱글일 때는 전혀 하지 않던 고민과 갈등이 생겼다.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해서 전시회, 음악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깊이 있는 지적 대화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해서 지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읽는 음악사, 미술사 같은 것을 사서 읽고, 생전 안 들던 클래식을 들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쉽지 않았지만, 사랑했기에 변화하려고 했다. 사랑하면 자연스레 그 사람을 위해 변하고

싶은 고민과 갈등이 생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롬 7:15).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원함’과 거룩을 향한 ‘지향성’이 생긴다. 그래서 작은 것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행함’이 바로 달라지지 않는다. 원함이 바뀌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긴다. 한 청년이 내게 물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중독을 못 끊어서 괴로워요. 구원받은 게 맞나요?”

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고민 자체를 안 한다”고 답했다. 고민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는 증거다. 안 믿는 사람은 이러한 고민이나 갈등 자체가 없다. 몸이 이끌리는 대로 죄를 짓는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죄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마음, 더 나아가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율법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는 원하지 않는 걸 행하면 율법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계속 걸린 채 차가 움직이면 타는 냄새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다. 죄에 또 넘어지면 허탈함, 자책감, 공허함이 밀려온다. 그러면서 죄가 점점 싫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혀 하지 않던 고민을 한다. 사랑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죄에 압도당하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있다. 성경은 거룩한 사람을 ‘완전무결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죄

인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

베드로도 그랬다. 자기 확신이 강하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때는 예수님이 그를 안 쓰시다가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실패했다고, 보잘것없다고 고백했을 때부터 “내 양을 먹이라”면서 그를 사용하셨다. 성경은 거룩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하고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에 낙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 거룩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바란다.



이승민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모상담

무조건적 용납과 사랑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다. 아이가 유독 활동량이 많아지는 나이에는 부모의 신경이 곤두서곤 한다. 가족이 함께 외식하러 갔을 때, 또는 공공장소에 외출 갔을 때에 부모는 더 집중해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한다. 방심하는 순간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아이가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안 돼”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아이가 불편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는 그런 지적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안 돼”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싫어”라고 반응하곤 한다. ‘안 돼’와 ‘싫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긴장감을 가중시킨다.

자기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아이가 사회적 행동을 할 때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늘 안전히 있거나 이른 나이에 사회적 행동 규범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안 돼’나 ‘싫어’라는 통제와 주장이 불꽃을 튀기는 시기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 아이는 부모의 무조건적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지만, 정작 사과하는 사람은 부모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그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으로 여기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아이의 잘못

을 용서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한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됐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되었다. 어른들은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데,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앞뒤로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부모가 준비한 간식을 먹기도 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음료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앉아있던 성도들에게 튀어서 얼굴과 옷에 묻게 됐다. 예배 중에 발생한 몹시 난감한 상황이었다. 실수하고, 많은 분에게 피해를 미쳤지만, 정작 그 아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감이 없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안절부절못한 사람은 그 아이 엄마였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 대신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휴지를 건넬면서 어찌할 줄 몰라 했다.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 대신 용서를 구했다. 사고를 쳤지만 표정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아이의 모습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미안함으로 안절부절못하는 엄마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첫째, 우리도 아이처럼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하게 살 수 없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살면서 실수한다. 주변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음료를 뿌렸던 아이처럼 말이다. 아이의 부모가 그 실수 이후 더욱 강박적으로 교육한다면 아이는 완벽한 것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 크고 작은 실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

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정이다.

둘째, 우리의 행동이 가족구성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실수를 저지른 아이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고,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지만 오직 아이만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때론 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자신이 한 행동이 가족구성원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자녀에게 거친 언어를 친근감으로 표현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대하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 “왜 자식에게 이런 말도 하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실수를 저지르고도 전혀 미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이 다.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은 나의 행동과 언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느껴볼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상대방, 그리고 상황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는 누군가의 호의와 사랑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용납을 경험해야 한다. 위에 소개했던 아이는 그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망을 듣지 않았고, 엄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대신 용서를 구해주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경험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을 향한 책망과 질책, 죄책감이 자라날 수 있다. 자기를 수용하기보다 계속 질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후회가 남는 일

을 했을지라도 부모가 대신 용서를 구해주면서 아이를 다시 안아주는 것처럼, 자신이 용납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구성원을 이익이나 손실을 떠나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은 살면서 많은 실수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 가까운 관계에서 쌓이는 불편한 경험일 수 있다. 세면과 양치를 자기 직전에 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날도 늦은 밤이 되도록 세면과 양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빠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빨리 씻고 잘 준비하지 왜 그렇게 늦게 씻니?”라고 혼을 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아이는 이른 저녁에 이미 세면과 양치를 했고, 자기 전에 밀린 과제를 하고 있었다. 혼이 난 아이는 몹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아까 다 했는데 왜 혼내세요?” 정말 불편하고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시간이 됐다. 아빠는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로 오해하고, 불편하게 했을지라도 다시 포용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이가 가족관계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미안하구나!”, “사랑한다!”라는 진심 어린 말이면 충분히 사람은 용납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유적지’

선교사의 기도와 땀 녹아 있는 ‘청주 탑동 양관’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위치한 일신여자중·고등학교 안팎에는 오래된 서양식 건물 여섯동이 흩어져 있다. 이를 ‘탑동 양관’이라 부르는데, 각 건물에 번호를 붙여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양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1904년, 밀러(Miller) 선교사가 청주에 도착하면서 탑동 양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5만 5천여 평 부지를 차례로 매입하고, 1906년부터 1932년까지 ‘양관’이라 부르는 선교사 사택, 학교, 병원, 성경학교 시설을 건축했다. 탑동 언덕 위에 지어진 붉은 벽돌집은 청주 사람들에게 신기한 건축물이었다. 서양인이 지었기에, 언덕 위에 있어서, 벽돌로 지어서 신기했다. 주변보다 높아서 어디서나 보였다. 한국인들은 이방인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긴장된 시선으로 지켜봤을 것이다.

밀러 목사가 이 양관을 지을 때 비가 억수같이 왔다. 그 와중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을 갈아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라는 가사를 담은 찬송가를 지었다.

양관은 지어진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건축적 특징을 나타낸다. 서양 건축양식이 한국에 도입되던 초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양관 부지에서 질 좋은 점토가 발견돼 그것으로 기와와 벽돌을 구웠다고 한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일꾼이 고용됐다. 지하실 외벽은 석재를 사용했다. 제4호 양관의 기초석은 천주교 순교자들이 간혀있던 청주감옥이 철거될 때 가져와 사용했다. 양관이라 부르기는 했지만, 한국 건축양식도 수용했기에 탑동 언덕에는 독특한 건물군이 형성되었다. 2호 양관을 제외한 각 건물에 도입된 한국 건축양식은 기와지붕이다. 한국식 기와를 사용했고, 지붕선도 전통 한옥 곡선을 살렸다. 건물은 ‘ㅁ자’ 평면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간을 다양하게 돌출시켜 복잡한 평면과 지붕 구조를 보여준다. 재미있는 점은 여섯 동 모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한국 주택은 남향으로 짓는다는 것을 밀러 목사가 몰랐던 것 같다.

당시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던 유리wa 스텝보일러, 벽난로, 수세식변기, 각종 창호 철

물류 등 많은 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했다. 철저하게 서양식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낮은 한국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는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강건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적응하는 동안 서양식 집에 거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탑동 언덕에 여러 동의 건물이 차례로 지어진 것은 지속적인 청주 선교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 밀러 목사가 청주에 정착한 이후 카진, 퍼비안스(의료), 쿡 부부, 도리스 등 많은 선교사가 차례로 정착했다. 청주 탑동은 충북지역을 담당하는 선교부로써 모양을 갖추었다. 청주를 중심으로 보은, 괴산, 충주 등지로 복음이 확대되었다.

1호 양관에 솔타우 목사가 살아서 ‘솔타우 기념관’이라 하는데, 개인에게 매각되어 밖에서만 볼 수 있다. 2호 양관은 농촌선교를 하던 중에 장티푸스에 감염돼 소천한 부레선 목사 기념 성경학교로 이어졌다, 지금도 청주성서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3호 양관은 밀러 목사 기념관, 4호 양관은 포사이드 기념관이라 부른다. 4호 양관 앞에는 선교사 묘역(자녀 포함)이 조성되어 있다. 제5호 양관은 로우 기념관이라 하는데, 여러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되었다. 6호 양관은 소민병원으로 병상 20개를 갖추고 청주 사람들을 치료했다.



청주 탑동 양관 전경.

청주 탑동 언덕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장소다. 공주, 청주, 전주, 광주, 목포, 군산 등지에 있다가 원형을 잃은 선교부의 원래 모습을 유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언덕 위 양관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신비로운 장소였고, 호기심에 구경하러 왔다가 복음을 듣는 곳이었다. 이 언덕에 병원과 학교가 있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치료받고, 교육받을 기회를 얻는 천국 같은 곳이었다.

가을이다. 바람을 빗 삼아 선교사들의 기도와 땀이 녹진하게 녹아 있는 청주 탑동 양관으로 달려가자. 그리고 잠자는 선교의 비전을 다시 일깨우자.

신앙의 선배를 만나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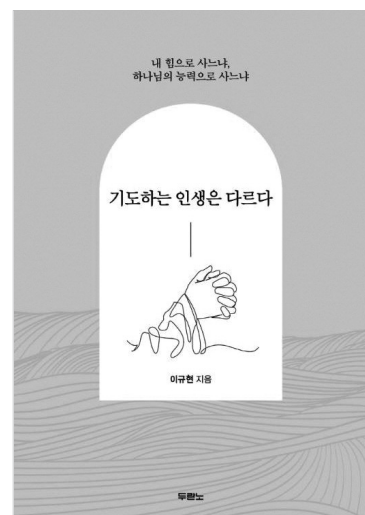
‘소다 가이치(오른쪽), 우에노 다키(왼쪽) 부부’.

교와 숙명여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던 우에노 다키를 만나 30세에 결혼한다. 그 이후 경성감리교회 전도사가 되어 ‘백만명구령운동’에 동참했다. 1911년 ‘105인 사건’ 때는 일본 대심원장(최고재판소 장관)을 찾아가 “죄 없는 사람에게 왜 벌을 주려고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인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소다 가이치는 ‘가마쿠라 보육원’의 경성지부장으로 부임해 1921년부터 1천 명 이상의 조선인 고아들을 돌봤다. 소다 가이치가 1943년 함경남도 원산의 원산감리교회에 초빙되었다. 우에노 다키에게 보육원을 맡기고 교역자로 부임했는데 그러던 중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 1947년 10월 소다 가이치 부부가 일본인들과 서울로 내려왔으나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군정으로부터 조선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전역을 다니며 ‘세계 평화’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회개하고 사과할 것을 외쳤다. 일본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늘 잊지 않았다.

1950년 우에노 다키가 72세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한일 간 국교가 맺어지지 않아서 소다 가이치는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1961년 한경직 목사의 도움으로 소다 가이치가 94세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시민증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일본인 최초 문화훈장을 받았다. 소다 가이치는 1962년 3월 28일 가마쿠라 보육원의 후신인 영락보린원에서 고아들을 돌보다가 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났다. 소다 가이치 부부가 보여준 참된 신앙의 모습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두란노 신간

기도의 비밀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
이규현 저 | 두란노 | 15,000원

자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당부한다.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면한다.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에는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기도하는 삶을 위한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도와준다.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의 저서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는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일하신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 설명한다. 또 저



농어촌교회 돕는 '도농행사'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농어촌선교팀, '도농행사' 개최

농어촌교회 농수산물 온라인 및 현장 판매

사회선교본부 농어촌선교팀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교회를 돕는 '도농행사'를 개최한다. 농어촌교회에서 싱싱한 현지 농수산물을 구매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수해당한 농어촌교회를 돕는 행사다. 이번 '도농행사'에서 판매하는 제

품은 천일염 20kg(4만6천 원), 고춧가루(5근 11만 원, 10근 20만 원, 20근 38만 원), 포도 5kg(5만3천 원), 보리굴비(대 10만 원, 특 12만 원), 전복 3kg(12만 원), 멸치액젓 1.5L(2만2천 원), 햇참기름 350ml(3만 원), 작두콩차 200g(1만2천 원)이다. '도농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

들은 9월 20일(수)까지 구글폼(QR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9월 16~17일, 23~24일에는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로비에서 현장 접수 및 판매도 할 예정이다.

문의: 010-3414-51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찾아가는 입양세미나'

9월 17일 오후 5시 30분 평택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제이홈에서 '찾아가는 입양세미나'를 9월 17일(일) 오후 5시 30분 평택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입양세미나에서는 입양 부모의 행복한 입양 이야기, 입양 및 위탁 방법, 절차 등을 안내

한다. '찾아가는 입양세미나'는 국내 온누리교회를 순회하며 진행한다. 다음 입양세미나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7581-4995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성찬 포도즙 제조

9월 18~19일 서빙고 지하 식당

성찬 포도즙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식당(지하 1층)에서 제조한다. 이 기간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성찬 포도즙 제조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임직 대상자 7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9월 12일(화)에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성찬 포도즙 제조를 했다. 양재온누리교회 권사 및 임직대상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문의: 010-2214-0130



미야기 기·도·제·목

- 9월 17일(주일) · 러브소나타 '미야기'를 통해 일본 목회자들이 연합되어 잡화에 동참할 뿐 아니라 다음세대를 이끌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 9월 18일(월) ·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 9월 19일(화) · 러브소나타 출연진(루나, 아년달라이트&크룩스, 조혜련, 김영미, 권사)의 공연을 통해 일본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를
- 9월 20일(수) · 결신 특순하는 사랑채의 모든 일정과 준비, 특별 순서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특순을 보는 일본인이 감동과 도전을 받기를
- 9월 21일(목) · 한국 참가자들이 방문할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기도해서 미야기 지역에 전도의 길이 열리기를
- 9월 22일(금) · CGN 직원들이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러브소나타를 준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전사고 없이 모든 준비를 잘 마치기를
- 9월 23일(토) · 라비벌 나이트(10월 11일에 일본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뜨거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로 예배하고, 이를 통해 신앙의 새 시작을 열어가기를

아빠를 위한 맞춤전도 '아빠 캠핑 가자'

10월 8~9일 강원도 춘천 왕터리조트 카라반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아빠들을 전도할 절호의 기회가 생긴다. 전도사역본부에서 아빠를 위한 맞춤전도 '아빠 캠핑 가자'를 개최한다. 10월 8일(주일)부터 9일(월)까지 왕터리조트 카라반존(강원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9-1)에서 진행된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아빠

를 전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24가정을 모집한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아빠 캠핑가자'

CGN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공모전'

9월 22일까지 기독교 영상 콘텐츠 기획안 제출

CGN이 오는 9월 22일(금)까지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다양한 주제의 기독교 영상 콘텐츠 기획안을 작성해서 구글폼(하단 QR코드 참고)으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한 작품 제출할 수 있다.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프로그램 한 편당

15분 내외로 제작하고, 에피소드가 5개 이상 나오는 시리즈물이어야 한다. 기독교 콘텐츠에 관심 있는 목회자나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CGN 홈페이지(cgn.tv.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9월 한 달 후원금 모집, 영양실조 아동 지원

NGO 더멋진세상에서 모리타니와 말라위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을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계좌(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후원금

은 모리타니와 말라위 어린이(6개월~15세) 약 470명에게 영양죽, 고단백 영양가루, 건강검진을 통한 약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6

일.하.세 아카데미 'Home Coming Day'

9월 23일 오후 1시 서빙고 한동홀

일.하.세 아카데미(이하 일.하.세) 'Home Coming Day(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 9월 23일(토)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일.하.세 졸업생이거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QR코드에서 하면 된다. 일.하.세 아카데미 'Home Coming Day(홈커밍데이)'에서는 방선기

목사가 설교하고, 이재훈 담임목사의 특강이 이어진다. 김영희 성도(일.하.세 아카데미 수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직장이 나의 선교지라는 것을 배워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문의: 010-8480-9970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통일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통일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통일선교학교에서는 8주 동안 '온누리 통일선교', '통일 바이블 스토리', '탈북민 이해', '국제협력'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지고, 통일선

교현장 아웃리치가 있을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등록할 때는 '이름, 소속, 출생년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회비는 교재비 포함 2만 원이다. 선착순 청년 20명은 회비를 면제해 준다. 문의: 010-4337-5927

일본어예배 전도집회 '키즈페스타'

일본어예배가 지난 9월 9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전도집회 '키즈페스타'를 개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250여 명을 교회로 초청했다. 일본어예배 전도집회 '키즈페스타'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마츠리를 열고 참가자들과 교제했다.

232기 순장학교 수강생 모집

232기 순장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는 10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10월 1일까지 각 공동체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이다. 양재는 10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드림홀에서 열린다. 10월 7일까지 각 공동체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10-2307-5547) 양재 (010-4172-0850)

'일일 35기 결혼예비학교' 수강생 모집

'일일 35기 결혼예비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수강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6만 원이다. 문의: 02-2078-3263

■ 사르밧 프로젝트 참여 독려



/ 김윤복 총무(서빙고 이웃사랑팀)

한 자루 쌀 나누며 살 만한 세상 꿈꾼다!

경주 최씨가문은 17세기 조선 중기부터 20세기 중기에 이르기까지 12대에 걸쳐 300여년 동안 막대한 부를 유지했다. 부자들이 존경받는 일이 흔치 않은데 이 가문은 부와 명예를 유지하면서 이웃의 존경을 받았다. 그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안 대대로 이어 온 제가수신(齊家修身)의 가훈 여섯 가지를 지켰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가훈이 ‘흉년에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와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이다.

사르밧 과부는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 마지막 양식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종지를 먹고 죽으려는 순간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다. 이 식량마저 떡을 만들어 내놓으라는 엘리야의 명령에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걸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뒤에는 죽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결국 믿음의 반열에서 축복을 받는다.

2023년 사르밧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어찌면 별것 아닌 쌀 한 자루일지 모르겠지만, 사방에서 수많은 사르밧 과부들이 나타난다. 진주의 어느 작은 교회는 사르밧 프로젝트 쌀

공급처로 선정되면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었고, 누구는 사연을 담아 사르밧 과부를 찾아 도우라고 기부하고, 어떤 이는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알리며 기도편지를 보낸다.

‘이웃사랑’은 온누리교회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섬기는 긍휼사역이다. 봉사자들은 교회 100리 안에 계신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쌀 한 자루를 어깨에 지고 언덕길을 올라 쪽방촌을 찾는다. 건네드린 쌀자루는 어르신 방안에 썩 허두는 게 아니라 금세 풀어헤쳐 옆집, 앞집한 공기 두 공기 또 다른 사르밧 과부들에게 나눠진다. 어르신들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이 귀한 것은 나눠야 해”라며 자신의 것을 나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 잇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사역이라는 확신이 든다. 한 자루 쌀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치고 멎든 상처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한다. 한 자루 쌀을 나누며 살 만한 세상을 꿈꾸는 ‘2023 사르밧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성도의 기도와 후원을 기대한다.

문의: 02-3215-3434

■ 일.하.세 아카데미 참가자 간증



/ 김영희 성도(인천온누리교회)

“일터는 나의 선교지”

일.하.세 아카데미를 알고 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일터는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매일 전쟁을 치르는 싸움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가 사역지라고 배웠다.

하지만 나는 교회에서의 영성과 일터에서의 영성이 너무 달랐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쉽게 이해하고 용납하는데, 직장에서는 정죄하고 불만을 표출하며 험담했다. 교회와 직장에서 너무 다른 내 모습이 싫었고, 직장에서도 교회처럼 일하고 싶었다.

일.하.세 아카데미 첫 강의부터 회복과 위로가 있었다.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아시고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직장은 우리가 가정 경제를 위해 꼭 다녀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깨뜨리셨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직장에 보내셨다. 직장이 나의 선교지임을 확실히 알게 하셨다.

2주 차 강의에서 들은 성공관은 시험에 떨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2021년 만삭의 몸으로 전공 관련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 떨어졌다. 그때 한 달 동안 큐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었다. 하지만

강의를 들은 이후 시험을 준비한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기회였기에 실패가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도덕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됐다. 하나님은 내가 일터에서도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는 월요일이 사라지고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하나님이 내가 속한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된다. 일터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은 별일 아닌 듯 넘어가게 된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그 날을 기대한다.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 튀르키예 아웃리치 간증



/ 고은미 성도(인천온누리교회)

작은 발걸음에도 역사하신다!

새신자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있는 중에 튀르키예 아웃리치 팀원 모집 광고를 봤다. 교회에 적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로지 자신에게만 몰입되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마음이 들었고, 튀르키예 아웃리치에 신청했다.

〈이샤야〉40장 9절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그런데 불쑥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속해 있는 유니계순과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님에게 이 마음을 나누었다. 하지만 아웃리치 팀에서는 이 마음을 나누는 게 망설여졌다. 팀 안에서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겸손히 나의 기도제목을 나눴다. 비로소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아다나교회에서 첫 사역을 앞두고, 우리 아웃리치 팀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인 게 생각났다. 우리는 이란 난민으로 구성된 교회 세 곳과 시리아 난민들의 텐트촌에서 사역했다. 나는 과연 그들과 팀원들을 형제라고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형

제인 것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아다나교회 리더십의 환대를 받으면서 주고받는 사역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날 우리 팀은 안디옥 지역으로 향했다.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광림교회 설립) 앞에서 기도 후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텐트촌 구호 사역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선포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의 작은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주권은 오직 그분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바울 생가와 로마 길 도보 체험을 하면서 복음에 빛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니테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앙카라의 엘람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강동 동서울A공동체 베트남 아웃리치



/ 이수연 집사(강동온누리교회)

기쁨과 행복 나눈 나라,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할 나라

수엔목교회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어린 시절 고향의 교회 같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성인사역과 어린이사역을 준비했다.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된 아웃리치 이틀 날 아침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한국 음식 조리에 관심 있는 베트남 여성 10여 명이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었다. 우리의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한두 명씩 모여들더니 어느새 교회 마당에 성도들이 가득했다. 알고 봤더니 수엔목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주변 6개 교회 성도들이 방문한 것이었다. 우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예정에 없었지만 ‘한국·베트남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와 친교가 진행되는 동안 권사님들이 주축인 블레싱 준비팀이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 세 명이 100여 명이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그것도 다양한 한국 음식을 뷔페로 풍성하게 준비하셨다.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었다.

오후에는 내가 가장 기대하고 사모했던 기

도 세미나가 열렸다. 베트남 성도님들의 특성과 우리가 준비한 베트남어 특순 찬양이 이어졌다. 세미나 후반에는 다 같이 수엔목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한 성도가 가정심방을 요청했다. 병환 중인 80세 노모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우리는 거동을 전혀 못 하고 눈과 귀가 어두운 어머니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교회는 발 디딜 곳 없이 아이들로 가득 찼다.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모두를 축복하며 어린이 캠프를 시작했다. 한국어 배우기, 복음 팔찌와 key-ring 만들기, 다함께 워십댄스, 게임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만끽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베트남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눈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는 나라, 계속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나라가 되었다. 나의 기도보다 크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서가시고 이끌어주신 좋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장로칼럼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노년을



정청 장로
(강남B공동체)

주일에배를 드리고 언제나처럼 <온누리신문>을 집어 들었다. 손에 들린 신문을 펼치기도 전에 첫 페이지에 쓰인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시니어라 그런지 ‘시니어’라는 글자가 적힌 기사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다. ‘시니어 아카데미가 뭐지?’라는 궁금증으로 기사를 찬찬히 읽으면서 시작하는 날짜와 시간을 살펴보았다. ‘마음으로 결정하면 나 같은 사람도 참석해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니어 아카데미에 첫발을 내디뎠다.

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참석이 처음이어서 궁금한 점이 많고,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개강예배에 참석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몸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일정표를 살펴보았다. 오후 시간에 예정된 커리큘럼이 눈에 확 들어왔다. 프로그램 하나 하나가 귀했다.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낸 시니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시니어들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일정을 꼼꼼히 살피면서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어르신’, ‘시니어’ 같은 소리를 들으며 뒷전으로 밀리고, 눈치 보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한 구성원으로서 오히려 존재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시니어 아카데미 모든 스태프가 조직화되어 있었다. 매끄럽게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시니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자녀들의 때 순간을 감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위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개강예배에서 강부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강부호 목사님이 들려주신 갈렘 이야기가 내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능력으로 샘솟는 새 힘을 불어 넣어주셨다. 자손들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로서의 소망을 일깨워주셨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매주 들었던 이정환 목사님의 정성스러운 메시지도 내가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목사님의 삶을 나누주시고, 시니어 각 개인의 삶을 나누도록 하셨다. 그 시간을 통해 자존감을 북돋아 주셨다.

말씀 외에도 귀한 시간이 참 많았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찬양과 레크리에이션도 즐거웠다. 김진옥 권사님이 진행하는 활기찬 오후 시간은 더욱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쉽기까지 했다.

시니어 아카데미 아웃리치는 어린 시절 소풍을 떠올리게 했다.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웃고 떠들면서 마냥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시니어 아카데미에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

2023 시니어 아카데미 하반기가 개강했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하나님 안에서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꿈꾸며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곳이다.

나는 다른 교회 친구들에게 시니어 아카데미를 자랑하며 참여 권유를 하고 있다. 이 귀하고 좋은 곳에 더 많은 시니어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노년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권사칼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김정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 신용산공동체 일원으로 캄보디아 아웃리치에 참여했다. 족적근막염으로 걸으면 통증이 심해서 잘 걸을 수 없었지만, 공동체 식구들의 중보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아웃리치 전날까지 아프던 발바닥이 땅에 닿아도 아프지 않고 잘 걸을 수 있었다. 예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신용산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 꼭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 2019년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갔을 때 만났던 아이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그리웠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욕심과 탐심이 없는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었다.

그리웠던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이화스텝 보건소에 갔더니 그곳에 있던 아이들과 현지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맨발로 달려와 우리를 반겨줬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왜 이제 왔어요?”,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다. 그들 또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날은 쪼아돔교회에 갔다. 그곳에서 함께 주일 예배드렸는데, 현지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들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강같이 흘러 눈앞을 가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려왔다.

“정숙아 네가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내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캄보디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사역했다. 땀이 줄줄 흘러 옷이 다 젖고, 소금물로 옷이 얼룩진 줄도 모르고 각자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신용산공동체 식구들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없는 은혜였다.

아웃리치 마지막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축복의 밤을 보냈다. 권애진, 김병식, 김한수, 배지연, 이철희 선교사님의 사역이야기를 들으면서 귀한 헌신에 감사드렸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떠올랐다. 그 옛날 척박한 땅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주신 것처럼, 캄보디아도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 덕분에 변화될 것을 기도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8).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거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눠야 할 때다. 故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그 이상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유세르게이 목사
(안산M센터)

1992년 러시아의 ‘로스토프’라는 도시에 한국인 선교사가 고려인 교회를 세웠다. 어느 날 그 목사님과 함께 한 집을 심방했다. 80세 넘는 고려인 할머니 덕이었다.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성경 말씀을 읽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고, 남편이 교회 집사였다고 했다. 80년 전에 이미 이곳에 한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1860년 초 함경도에 가뭄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863년 함경도 주민 13가구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경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했다. 한인

들의 러시아 이주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러시아 정부 기록을 보면 연해주 한인 인구가 1882년 약 8천3백 명이었는데, 불과 23년 만인 1905년 3만4천4백 명으로 늘었다. 또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들과 항일 투쟁을 위해 연해주로 넘어온 고려인들이 연해주에 정착했다. 1917년 약 8만4천7백 명에 달했고, 오늘날 구소련 공화국을 다 합치면 그 인구가 약 50만 명이나 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적인 이유로 고려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에 러시아어권(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덕분에 전국에 고려인이 약 12만 명 거주하고 있다.

한인들을 통한 연해주 선교는 장로교 교단 경우 1909년부터 시작됐고 감리교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1920년 연해주에 성도가 2천 2백 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침례교 교단은

러시아어예배의 사명

1909년 선교를 시작했는데, 11년 만에 성도가 3천6백 명 생겼다. 러시아 국적을 받기 위해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을 포함하면 1925년 연해주 동포 10명 중에서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고려인 대부분 모르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고려인 조상 중에 농부, 3.1운동가, 예술가, 지식인들도 있었고,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들도 있었다. 고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역사는 1900년대가 아니라 그보다 100년 전 시작됐다. 그런데 소비에트의 반종교적인 정책 때문에 1925년 교회가 대부분 없어졌다. 당시 연해주에 사는 외국인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교회 건물과 재산을 약탈하기가 쉬웠다. 당시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항의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고려인들의 기독교가 후손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무신론자의 나라에서 살

아남게 하려고 부모가 신앙 전수를 거부했다. 부모 입장에서 그 심정이 이해되지만, 당시의 선택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러시아어권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한국에만 교회가 100개 이상 있고, 미국 뉴욕에 2개, 캐나다 토론토 1개 등이 있다. 고려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 그 신앙의 역사는 연해주 한인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러시아어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이 있다. 적어도 150개 러시아어권 민족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고려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그들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구로 인정받는 관계에서 문화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갖춰져 있다. 하나님이 친히 100년 전부터 선교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온누리교회 러시아어예배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12만 고려인들이 신앙을 되찾기를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보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형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분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서빙고)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5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 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2024년 상반기(1~6월) 온누리교회결혼예배 예약
일시: 9월19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지하 2층 드림홀
자격: 예비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능(예비신랑, 신부는 타교회 상관없이 등록교인이어야 함).
신청: 예비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준비: 예약금 100만 원(현금) 및 등록교인 증명서(예비 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등록교인증명서' 지참)
문의: 02-570-750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렐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영어 놀이 프로그램 'Dream Seed' 교사 모집
모집: 소그룹, 반주
교사모임: 매주 토 오전 10시 30분
수업: 10월 14일~2월 2일
장소: 도곡교육관 B동 1층 꿈아이홀
문의: 박정옥 코치(010-4394-9309)
* 교사 자녀가 드림씨드 등록 시 등록비 할인 혜택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6부 19:00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지녀)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 J대 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준비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아부, 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0: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아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릉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해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해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송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옥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M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克蘭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ainsa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l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충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용갑 김재석 김도윤 김미정 김진세 김성욱 김성용 김승겸 김승민 김연배 김요셉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대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대웅 김태환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김희준 노혜배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준준 박형준 박해상 박성우 박진규 변대환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스티브차 안기복임 양성민 양재성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천우 이재원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현상 정성진 정승철 정현호 정성현 정경원 정철성 정지찬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명민 최용준 최와영 최충현 최혁중 추대식 최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종연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종영 김대주 김혜경 김진라 뉴이연은 한해준 마추마추 박씨바 백승현 비 킬 서영철 시애틀비 바르그 윌리엄 에릭 바그 이틀스 블라그 이강익 미아영 에이프루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미 윤치연 제인랑 존글레저 채예미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곡시은 강우갑 김재석 강도윤 김미정 구길모 권대식 권애람 김가희 김기태 김대모 김광구 김미리 김민수 김백사 김대성 김영신 김예찬 김의연 김종균 김정부 김지선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현빛 김현경 허혜민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승훈 박은혁 박익력 방예린 배명지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환 신새벽 신재복 신성섭 안류택 양현모 염경덕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원 유하은 유현우 유호준 유석무 윤조현 윤종연 윤혜진 이나단 이도열 이동준 이명희 이만규 이상은 이소라 이시해라 노리코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정민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한 이현이 이형준 이취영 임경미 임도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진 장요한 정기는 정성애 정성민 정영진 정영현 정현희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순희 최수정 최민정 최영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하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유일	김경선 김광동 김남일 김성인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영 김용성 김용성 김원준 김원준 김윤식 김원식 김진국 김종욱 김현철 김형식 김종진 김종욱 김철성 김희준 김진국 김현철 김형식 김희준 김
--	---	---	---

올 추석에는, 고마운 분들에게

두플러스 구독권을 선물하세요!

2종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



★ 선물 받으시는 분이 직접
가입,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플러스 추석 선물 EVENT



구매처 • 두란노문고 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

지금 두란노문고에서 구독 이용권을 구매하시는 분께,
두플러스 굿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두플러스 팅스 굿즈 세트 구성

스마트 거치대 + 마우스 패드 + 도서 1종 + 감사 엽서



큐티

생명의삶 •
Living Life •
새나 • 예나 • 예조

세대별/언어별 QT를
역본 대조, 오디오 QT로
쉽게 독상할 수 있어요.

매거진

생명의삶 PLUS •
목회와신학 •
그말씀 • 빛과소금

최근 월간지부터 과월호
까지, 웹 매거진 형태로 열
람할 수 있어요.

도서

약 900권 이상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두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
는 두플러스 ONLY 도서
도 놓치지 마세요.

클래스

가스펠 프로젝트 •
기독교 영성 고전산책 •
성경공부

전문 강사들의 세미나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
로 바로 만나 보세요.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